

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함께 만드는 행정수도 세종



세종 특별자치시의의회

보도자료

제공일자	2026. 8. 31.(월)	사진 · 영상	사진(○), 영상(×)
보도일자	2026년 8월 31일(월)부터		
담당부서	의정담당관 의정팀	담당자	박경용 사무관 ☎044-300-7211
			김용모 주무관 ☎044-300-7212

세종특별자치시의의회,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범국민 결의대회 결의 다져

31일(월) 국회서 열린 범국민 결의대회에 의원·직원 40여 명 참석
의장 연대사 발표 및 공동행동 선언… 행정수도 완성 위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세종특별자치시의의회(의장 안신일)가 31일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에서 개최된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에 대규모로 참석하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범국민대책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국회의원(강준현·김종민·황운하)이 공동 주최한 행사로, 충청권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800여 명이 집결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세종시의회를 비롯해 전국 각 지역의 시도의회장단*이 함께 참석하여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범국가적 연대를 보여주었다.

* 충북: 이상식, 충남: 조철기, 대전: 조성철, 경기: 남종섭, 서울: 임만균 의장

세종시의회는 안신일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 40여 명이 현장에 동참하여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행사에서 안신일 의장은 세종시의회를 대표해 연대사를 발표하며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연내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석자들과 함께 제정 결의 및 공동행동 선언을 진행하고 구호 피켓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결의대회 종료 후에는 의원회관으로 이동해 충청권 주요 내빈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으며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향후 연대 및 협력 방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했다.

세종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범국민 결의대회는 세종시의 완전한 행정수도 도약을 위한 핵심 법안인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전국민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킨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법안이 연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